

(제5편)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김정호*

1. 머리말

태국(Thailand)은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적인 농업국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농식품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태국에는 국제기구의 본부나 사무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 산하의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ESCAP) 본부를 비롯하여 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가 방콕(Bangkok)에 개설되어 있으며, UN 기구의 지역사무소를 합하면 총 25개에 달한다. 그래서 세계 규모의 아시아권 국제회의가 대체로 방콕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국제적 환경을 지닌 배경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태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이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돈독하다.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며, 1959년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경제협력단체를 통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2016년에 농업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reikjh@naver.com

이 글에서는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개한다. 소절로 국제기구와의 관계, FTA 협상 동향,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상황, 한국과의 농업협력 동향 등의 순으로 편성하여 서술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국제기구와의 관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관계를 맺어 많은 경제원조를 받았다. 현재 외교는 반공(反共)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도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1)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¹⁾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하여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였다. 창설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어나 ‘아세안 10(ASEAN 10)’ 이라고 불린다.

아세안은 1990년대 들어 지역적 안보환경이 개선되면서 1992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그리고 1994년에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출범시켜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였다.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였으며, 선발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 간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ASEAN 비전 2020’ 을 채택하였다. 최근 2016년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행동계획’ 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세안연계성기본계획 2025’ 를 채택하였다.

1989년에 설립된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에이펙)는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다. 창설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며, 현재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태국의 대외 관계” 에서 편집 정리.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역내 각료들의 최고협의기구이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역 경제통합 촉진, 경제적·기술적 협력, 역내 복지 증진, 우호적·지속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꾀하고 있다.

태국은 인근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도 주력하였으며, 태국이 중심국가가 되는 광역경제권 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 태국의 주도로 메콩지역경제협력체(ACMECS; 애크멕스)를 설립하였으며, ACMECS에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를 출범시키고, 한·메콩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2) 태국 소재 유엔기구 사무소²⁾

태국은 UN 창립 이듬해인 1946년에 가입하였으며,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UN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① 본부 : 1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

②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 16개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신연맹(ITU),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유엔 개발계획(UNDP),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 인구기금(UNFPA),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마약범죄국(UNODC), 유엔 연구사업소(UNOPS), 만국우편연합(UPU)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관, 국제전기통신연맹(ITU), 유엔 여성기구(UNWOMEN), 유엔 자원봉사단(UNV)

③ 소지역 사무소 : 9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HCR)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유엔 사막화방지기구(UNCCD) 아시아지역 사무소, 유엔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아시아지역 사무소, 유엔 인권위원회(UNOHCHR)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세계식량계획(WFP) 지역사무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지역사무소,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2) 네이버 지식백과, “태국 소재 국제기구 현황” (태국 개황, 2019. 11.)에서 편집 정리.

④ 국별 사무소 : 4개

유엔 인간거주센터(UN-HABITAT), 유엔 훈련조사연수원(UNITAR), 국제금융공사(IFC), 세계보건기구(WHO)

3) 태국 소재 기타 주요 기구 : 15개

그 밖의 주요 기구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공과대학(AIT),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아시아·태평양체신협의회(APT), 아시아재보험공사(ARC), 세계은행(IBR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방콕지역 대표단, 국제적십자연맹(IFRC) 방콕지역대표단,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지원 사무소, 동남아수산개발센터(SEAFDEC),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양식연계센터(NAC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S),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태국 사무소,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관할 사무소 등이 있다.

3. 양자 FTA 추진 동향³⁾

1) 호주(태국-호주 FTA)

2005년 1월 1일에 호주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발효 시에 태국은 전품목의 49%(호주는 83%)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양국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2015년 1월 1일 시점으로 태국 측은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13품목(식육 관련)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202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호주 측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하였다.

2) 인도(태국-인도 FTA)

2003년 10월 9일에 인도와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기본틀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 9월 1일부터 가전제품·자동차부품 등 83개 품목의 관세를 선행하여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는 ‘일리 하베스트’ (EH, 관세 선행 인하)를 실시하였다. EH 품목의 관세는 2006년 9월 1일에 모두 철폐

3) 이 절의 내용은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의 태국 자료(<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되었고, 2008년 12월말에 실시된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칙의 일반규칙에서 HS코드 6자리 수준의 변경(CTSH) 및 부가가치 기준 35% 적용에 합의하였다. 그 동안 2012년 1월에 EH를 규정한 '태국·인도 자유무역지역 구축을 위한 기본협정'의 '제2수정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3) 일본(태국-일본 EPA:JTEPA)

2005년 9월에 기본틀에 합의하여 2007년 4월에 서명하고 동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것은 물품 무역과 함께 세관 절차, 상호 승인, 서비스, 투자, 인적 이동, 지적 재산, 정부 조달, 경쟁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이다. FTA 성과에 대하여 태국 무역협상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태국은 총품목 중 2019년 시점에서 99.1%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했는데, 일본은 총품목의 88.1%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미국(태국-미국 FTA)

2004년 6월부터 본협상을 개시하였다. 태국 내에서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의약품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에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측이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과도정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태국 측도 이를 받아들인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 미국은 FTA와 관련되지 않은 무역과 투자 등의 문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양자협의를 고위급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5) 바레인(태국-바레인 FTA)

2002년 12월에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626개 품목의 얼리 하베스트(EH)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태국은 관세동맹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협상을 우선할 방침이다.

6) 페루(태국-페루 FTA)

2003년 10월에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에 얼리 하베스트(EH) 의정서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각료 회의에서 얼리 하베스트 제2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에 의

정서가 발효되었다. 페루는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자유화, 나머지 30%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7) 뉴질랜드(태국-뉴질랜드 CEPA:TNZCEP)

2005년 7월 1일에 뉴질랜드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호주와의 협상(TAFTA)을 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태국이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는 철폐되고 있으며, 나머지 물품의 관세는 2025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다. 태국과 뉴질랜드는 2017년 7월 24일에 특정 농업에서의 무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뉴질랜드-태국 경제동반자협정(TNZCEP) 부속서3를 수정하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8)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태국-EFTA)

2013년 8월 태국에서 EFTA와의 협상 틀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태국에서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협상을 중단하였으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협상 재개를 합의하였다.

9) EU(태국-EU · FTA)

2012년 12월에 협상 틀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2013년 3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었다. 태국에서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협상을 중단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칠레(태국-칠레 FTA)

2010년 11월에 APEC 정상회의(일본) 개최기간 중 양국 수뇌 간에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서명하고 2015년 11월 발효하였다. 2018년 현재 태국 측은 88.6%, 칠레 측은 9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부분은 8년간 서서히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 중이다.

11) 기타 국가

파키스탄(태국-파키스탄 FTA)과는 FTA 협상단계이지만 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터키(태국-터키 FTA)와는 FTA 틀이 협상단계이지만 아직 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스리랑카(태국-스리랑카 FTA)와는 2017년 7월 13일에 FTA 협상이 개시되어 2020년 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 중이다.

4.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상황⁴⁾

1) 중국(ASEAN-중국 FTA)

ASEAN-중국의 FTA 기본틀 협정 하에서 얼리 하베스트(EH; 관세 선행 인하)를 실시 중이다. 2003년 10월부터 HS07-08류(야채, 과일)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 1월 이후 01-06류(농산물)의 관세인하를 개시하였다. EH 이외의 관세 인하는 2005년 7월 20일부터 개시하였다. 그 후 기본틀 협정 하의 투자 협정에 대해서는 ASEAN과 중국 간에 2009년 8월 서명하였다.

ASEAN 선행 가맹 6개국 및 중국은 노멀 트랙(Normal Track;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폐지) 대상 품목에 대해 2010년 1월 1일에 관세철폐 완료하였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 0~5%로 인하되었다. ASEAN 신규 가맹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노멀 트랙 대상품목에 대해 2015년에 관세 철폐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0~5%로 인하한다.

원산지 규칙에 대하여 일반사항은 누적 원산지 비율 40%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원산지 규칙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HS코드 4자리 관세분류 변경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

농림수산품은 완전생산품(WO) 기준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규칙(PSR)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정판 PSR도 2019년 8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단, 베트남의 경우만 2019년 8월 20일부터 실시).

2015년 11월 21일에 ASEAN과 중국은 ASEAN-중국 FTA 기본틀 수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 인도(ASEAN-인도 FTA)

4) 이 절의 내용은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의 태국 자료(<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200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정에는 얼리 하베스트(EH)의 실시, 2006년 1월부터 관세 인하를 개시하여 2016년 말까지 FTA로서 확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8월에 후술하는 관세 철폐·인하 방식으로 협상에 실질 합의하였다. 2009년 2월말의 ASEAN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이나 인도 측의 총선거가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여 서명이 재고되었다. 2009년 8월 13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인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으며, 태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허표에 대해서는 인도 측이 2종류(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 그 외 ASEAN 9개국으로부터의 수입), ASEAN 측이 3종류(필리핀, 필리핀을 제외한 선진 ASEAN 5개국, CLMV⁵⁾) 존재하므로 관세철폐 일정이 각각 다르다.

관세 철폐·인하 방식으로 ① 일반 품목(NT): 품목수의 80% 및 무역액의 75%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말까지 관세 철폐한다(일부 품목은 2016년 말까지 유예). ② 민감 품목(SL) : 품목 수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품목은 2016년 말까지 관세율 5%로 인하한다. ③ 고도 민감 품목(HSL) : 2019년 말까지 일정 이하의 관세율로 인하한다. ④ 제외 품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 489개(전체 품목수의 9.36%) 및 교역액의 5% 이내이다. ⑤ 원산지 규칙: 관세번호 변경기준(HS 6자리 수준[CTSH])과 누적 원산지 비율 35%를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1일에 ASEAN-인도 서비스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이 인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간에 발효되었고, 이어 라오스 간에도 발효되었다.

3) 일본(ASEAN-일본 CEP)

2003년 10월에 ASEAN-일본 포괄적 경제연합 기본틀을 체결하였다. 2005년 4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11월에 타결되었다. 2008년 4월에는 ASEAN 10개국과 일본과의 서명을 완료하였다. 2008년 12월 1일에 우선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사이에서 발효되었고, 그 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2009년 6월 1일), 캄보디아(2009년 12월), 필리핀(2010년 7월 1일), 인도네시아(2018년 3월)가 발효되었다.

물품 무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발효 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93%를 무

5) CLMV는 ASEAN 신규가입 4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말한다.

관세화하도록 하였다. 농산품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에 관세 철폐에 응한 품목을 그대로 양허하였다. ASEAN의 선행 가맹 6개국은 10년 이내에 무역액의 90%(품목 베이스로 90%)를 무관세화 하고, 베트남은 90% 품목을 발효 15년 이내에,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85% 품목을 18년 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원산지 규칙에 대해서는 완전생산품(WO) 기준(일부 대상 품목), 관세분류 변경 기준(HS 4자리 수준) 또는 누적 원산지 비율 40%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 규칙(PSR)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4) 한국(ASEAN-한국 FTA)

2002년 3월에 산학관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2003년 12월부터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6년 5월에 태국 이외에는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에서의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했지만, 태국만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을 거쳐 2009년 2월에 서명하였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세 삭감은 2010년 1월 1일에 개시되었다.

일반 품목은 2019년 현재 90.9% 제품에 대해 관세철폐, 태국은 2019년 현재 88% 제품에 대해 철폐로 적용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에 ASEAN-한국 물품무역협정(AKFTA) 제3수정의서에 대하여 타결하였다. 포괄적인 항목별 관세 인하 스케줄, AKFTA에 관련하는 신법령의 신속한 공포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5) 호주, 뉴질랜드(ASEAN-호주 NZ · FTA: AANZFTA)

2005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5월까지 9회 협상을 실시해 왔으며, 2008년의 ASEAN-호주-NZ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9년 2월에 ASEAN,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장관 간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일자로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간에 발효되었고, 태국은 2010년 3월 12일에 발효되었다.

2014년 7월, 국가평화질서평의회는 AANZFTA의 제1 수정의정서 개요를 승인하고, 동년 8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는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들 2개국 간의 의정서는 2016년 1월에 발효되었다. 2019년 시점에

는 호주 측이 96.0%의 상품, 뉴질랜드 측이 90.1%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6) 벵골만 다분야 기술협력 이니셔티브(BIMSTEC)

2004년 2월에 BIMSTEC 가맹국에서 FTA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6월 14번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네거티브 리스트 품목 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일반 품목의 관세인하 범위 및 인하율에 대해 네 팔이 합의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7) EU(ASEAN-EU · FTA)

본협정 검토를 위한 회의가 2009년 3월까지 7차례 열렸으나 이후 협상은 중단되었다. 2011년 5월 5일에 개최된 ASEAN-EU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양 지역의 비즈니스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나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는 등 무역상의 관계 강화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4월 ASEAN과 EU는 FTA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8) 홍콩(ASEAN-홍콩 FTA)

2017년 11월 12일에 ASEAN과 홍콩은 ASEAN-HKC 자유무역협정(AHKFTA)과 ASEAN-HKC 투자협정(AHKIA)에 서명하였다. AHKFTA는 시장접근의 자유화, 무역원활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 지역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한 협력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AHKFTA는 2019년 6월 11일에 홍콩,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및 베트남에서 발효되었다. AHKIA는 2019년 6월 17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에 발효되었다. 2019년의 시점에서는 태국 측이 84.9%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전품목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홍콩 측은 AHKFTA의 발효 일부터 100%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철폐를 완료하였다.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태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RCEP 협상을 2013년에 개시하여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협상 7년만인 2019년 11월 4일에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2012년 11월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협정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이어졌다.

2019년 11월 4일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면서,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된다. 이로써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한 셈이다.

<그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자료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5. 한국과의 농업협력 동향⁶⁾

1) 양국 간의 교류 개요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UN군으로 전투병력을 파견한 우방이며, 한국과는 1959년 1월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 1974년 외교정책 다변화 이후 1975년 5월에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겸임공관을 두었다. 현재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양국이 수교한 후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1967년에 타놈(Thanom Kittikachorn) 총리가 방한하였다. 그 후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2014년에 프라윛(Prayut Chanocha) 총리가 방한하였고, 2019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프라윛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외교적으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회의를 통한 양국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즉, ASEAN+3, EAS, APEC 및 ASEM 정상회의 (정상, 외교장관 등), ASEANPMC 및 ARF(외교장관, 매년 7월), ACD 회의(정상급 또는 차관보급 이상), ESCAP 총회 등이다.

양국 간의 주요 조약으로는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7, 개정 1991), 이중과세방지협정(1974, 개정 2006), 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9),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1998), 해운협정(2002), 문화·교육협력협정(2004), 민사상사사법공조협약(2013) 등을 체결하였다.

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200명이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재외국민 수는 20,12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여행업이나 요식업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계 투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국과도 사업상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양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향

6) 이 절의 내용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태국 개황 외교간행물 정보에서 인용하였으며(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과 태국의 경제·통상 관계),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공·해운 분야 협력 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통상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2010년부터 ‘태국의 한·아세안 FTA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양국 간의 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교역량은 2011년 1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양국 간 교역량은 141억 달러(수출 85.0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한국이 29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전기·전자, 기계, 플라스틱, 선박 등이고, 수입 품목은 전자부품, 기계, 고무, 플라스틱, 목재 등이다.

<표 1> 한국과 태국의 연도별 교역 현황(2010년~2018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교역액
2010	64.6	42.7	41.7	28.7	22.9	106.3
2011	84.6	30.9	54.1	29.9	30.5	138.7
2012	82.2	-2.8	53.5	-1.1	28.7	135.7
2013	80.7	-1.8	52.3	-2.3	28.4	133.0
2014	76.0	-5.9	53.4	2.2	22.5	129.4
2015	63.6	-16.3	48.5	-9.2	15.1	112.1
2016	64.8	1.9	45.6	-6.0	19.2	110.4
2017	74.7	15.2	52.0	14.1	22.6	126.7
2018	85.0	13.9	55.8	7.3	29.2	140.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태국에 대한 투자는 1988년 이래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베트남 등 새로운 투자 대상국이 등장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총 3,210건, 누적액 33.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39위 투자 대상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이다. 태국의 대 한국 투자는 총 422건, 1.7억 달러(2018년 말 누계, 신고 기준)이다.

투자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 태국 투자(신고 기준)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58.5%를 차지하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3.6%, 건설업 7.4%, 도매 및 소매업 6.4% 등으로 구성된다. 제조업 중에는 1차 금속 제조(44.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2%)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7.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4%) 투

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현재 영업 중인 태국 내 우리 기업 약 400개사 중 제조 기업이 210개사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한국과 태국의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대 태국 투자	금액	280.9	131.1	177.5	110.5	111.7	110.5	3,387
	건수	251	208	164	191	227	189	3,210
대 한국 투자	금액	3.0	1.9	51.8	4.4	7.3	11.4	173
	건수	22	13	12	33	49	47	422

누계 : 대 태국 투자(1980~2018), 대 한국 투자(1962~201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대 태국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대 한국 투자), 신고 기준

최근 이슈로, 2019년 6월 7~8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한류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한류박람회는 신남방정책 중심지 태국에서 한류를 활용한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브랜드의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며,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국 기업 175개사 외에도 태국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307개사가 참가했으며, 이틀간 2만 2,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⁷⁾

3) 태국과의 농업협력

태국과 한국의 농업협력은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양국 농업부 장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⁸⁾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016년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차차이 사리쿨야(Chatchai Sarikulya)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관개 배수 분야 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7) KOTRA 보도자료(2019.6.9.)에서 발췌 인용.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1.29.)에서 발췌 인용.

그동안 진행된 태국 KOPIA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한-태국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에 대한 태국 측의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태국 KOPIA센터는 2015년부터 옥수수 일대잡종(NS3) 종자 생산으로 태국의 외국산 종자 구입비 60%를 절감하였고, 원격계측 물관리 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을 통해 물관리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수자원종합관리계획(2015~2026년)에 따라 관개배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태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에프터)를 통한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특별히 협력할 사항은 많지 않으나, 양국 모두 식량원조국이라는 점에서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APTERR 사무국이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APTERR는 아세안+3국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이다. APTERR의 협정발효 요건이 2012년 6월에 성립되었고, 2012년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3년 7월에 국회 비준을 완료하였다.

<표 3> APTERR 국가별 쌀비축 현황(2019년)

단위 : 천 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PTERR를 통한 우리나라의 지원실적은 2017~2020년간 5개 수원국에 총 15,000톤을 지원하였다. 세부내용은 2017년에 재해대비용 750톤(미얀마 500톤, 캄보디아 250톤), 2018년에 긴급구호용 12,300톤(베트남 1만 톤, 미얀마 1,300톤, 라오스 1,000톤), 2019년에 재해대비용 1,000톤(미얀마, 라오스 각 500톤), 2020년에 비상구호용 950톤(필리핀 950톤) 등이다.

최근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2020년 8월 5일 제1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하였다.⁹⁾ 이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8.6.)에서 발췌 인용.

한편, 2020년 7월에는 태국 방콕의 FAO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에 지역대표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임명되었다.¹⁰⁾ FAO 세계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에 기여해 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농업 분야에서도 격상된 것이다.

6. 맺음말

태국에서 탁신 정권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외국과의 FTA 체결 움직임은 2014년 쿠데타 발생으로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 후 2017년에 프라윗 정권이 민주제 이행의 일정을 제시하면서 EU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도 진전되었다.

태국은 2019년 말 현재, 양자 FTA를 6개국(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페루, 칠레)과 체결하고 있는 것 외에 스리랑카와는 제2차 FTA 협상을 실시하여 2020년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SEAN 가맹국으로서 ASEAN 6개의 FTA 협정(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인도, 홍콩)에 참가하고 있다.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은 201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 ASEAN 서비스무역협정(ATISA)이 ASEAN 가맹국(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제외) 간에 합의되었다.

최근에 미국이 이탈하여 11개국이 서명한 포괄적·선진적인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PP)에 대하여 태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와는 양자·다국간 모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19년 11월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과의 협정을 타결하였고, 2020년에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시행될 전망이다

태국과 한국은 1959년 1월에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외교적으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회의를 통한 양국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항공·해운 분야 협력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의 농업협력은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양국 농업부 장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국 간에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전문가 교류와 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

10)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로 김종진 부소장(전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을 로마시각 2020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소재하여 5개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관할 지역의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이 아시아의 선구적인 농식품 수출국이며 또한 ASEAN의 중심국가로서 한국과 농업·농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태윤 외, 201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영욱, 2015,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 손수현, 2013, “태국 농업 개황”, 『세계농업 15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13,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세계농업 16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井上 莊太朗, 2019. “第6章 タイ - 米の保護政策の後退と農業の多様化”,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관련 홈페이지

-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
- 주한 태국대사관 <http://www.thailandtoday.in.th/economy/>
- ASEAN사무국 <http://www.aseansec.org/>
- 태국 농업부 <https://eng.moac.go.th/main.php?filename=main/>
-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s://www.jetro.go.jp/world/asia/th/>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